



즉시 배포용: 2022년 3월 3일

KATHY HOCHUL 주지사

미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임시 보호 지위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
국토안보부에서 **KATHY HOCHUL** 주지사가 발표한 성명서

"러시아의 정당하지 않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은 인권 유린,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,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만든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.

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우크라이나 공동체가 있는 곳이며,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전쟁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해 준 바이든 행정부와 **Mayorkas** 장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.

전에도 밝혔듯이,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 항구에 우뚝 서 있는 가운데, 뉴욕은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